

제43회 진도 신비의바닷길 축제, 성공적인 마무리

4년만의 개최...3일간의 축제에 수만명 다녀가 “다양한 관광자원 활용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

‘소망의 땅, 기적의 바다로’ 제43회 진도 신비의바닷길 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코로나 19로 인해 4년 만에 열린 이번 축제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일원에서 개최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K-명예관광축제의 명성에 걸맞게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해 수만명이 이번 축제를 방문한 것으로 기록됐다.

군은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SNS 이벤트와 축제 기간 동안 스탬프 랠리 이벤트를 진행, 당첨자와 미션 수행자에게 모바일 커피 쿠폰과 ‘여가 진도여 1’ 책자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축제 개막식에 진도 출신 가수 송가인과 세계적인 비보이 댄스 그룹 진조크루가 출연해 방문객들과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또한 70여종의 다양한 볼거리·즐거거리·체험거리도 진행했다.

진도에서만 볼 수 있는 진도 씨감굿, 남도들 노래, 진도북놀이, 강강술래, 다시래기, 조도땃배노래 등 다양한 민속문화 공연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선보였다.

글로벌존에서는 글로벌 음악여행, 탤런트쇼, 응답하라! 모세의기적, 씨름·립보 대회, 킬러풀 진도 등의 글로벌 프로그램 확대와 외국 관광객들의 활발한 참여로 큰 웃음을 선사했다.

또한 최신 미디어 아트 기술로 빛과 영상을 활용한 신비의바닷길 미디어아트 야간 콘텐츠를 운영,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었다.

진도 신비의바닷길을 기하학적인 점·곡선·면의 디자인으로 표현하고 생동감 있게 움직



이는 물과 빛의 순환으로 실제 진도 신비의바닷길이 열리는 효과 등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진도율금, 구기자, 김정팔, 김, 미역, 다시마 등 우수한 농수산물들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 볼 수 있는 판매장에는 많은 관광객이 몰려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4년만에 개최되는 축제

인만큼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 진도 신비의바닷길 축제가 청정바다 진도만의 민속문화와 예술, 수려한 풍광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강진 월출산 봄소풍 축제’ 피크닉 명소 자리매김

“강진다일부터 백운동 월림, 경포대, 여기에 아름다운 꽃까지, 대한민국에 피크닉 장소로 강진 월출산 일대를 대신할 곳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추억 안고 갑니다.”

지난 21일부터 강진녹차밭 일원에서 열린 ‘강진 월출산 봄소풍 가는 길’ 축제가 3일간의 차(茶)빛 힐링을 뒤로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강진군에 따르면 봄소풍 축제 현장에는 관광객들이 대거 운집해 행사장을 가득 채우는 대성황을 이루고, 강진 월출산에서만 만끽할 수 있는 풍경과 콘텐츠를 즐겼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던 축제장은 파란 하늘과 짙은 베이지색 이마가 흰히 드러난 듯한 월출산 바위, 광활한 연두색 녹차밭이 어우러지며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했다. 관광객들은 월출산의 절경을 배경으로 10만 평 녹차밭이 뿜어내는 싱그러움과 축제장 곳곳에 핀 유채꽃 물결에 취해 봄날의 여유와 낭만을 즐겼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이가월기(이야기가 가득한 월출산 기행)’ 트레킹이었다. 민선 8기 들어 새롭게 추진한 콘텐츠로, 월출산에 깃든 다양한 스토리를 알고 나면 향후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라는 판단하에 기획했다.

강진군 문화관광해설사가 직접 동행해 월출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 경포대부터 눈부신 초록빛의 녹차, 비밀의 숲으로 불리는 백운동 월림, 다산 정약용 선생과 제자들이 지배한 전통 녹차, 한국 최초로 차 상표(백운옥판차)를 생산한 이한영 선생까지 월출산이 품고 있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줘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특히 인기를 끌었다.

‘이가월기’에 참여한 관광객들은 한결같이 “자연이 건넨 선물을 평소 몰랐던 이야기로 흥미롭게 풀어낸 축제 콘텐츠가 아이들 교육에도 도움이 된 것 같다”며 “강진 월출산의 비경은 물론, 주변의 숨어있던 힐링 명소를 만날 수 있어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간다”고 호평했다. 또 신선한 바람과 따사로운 햇살 아래서 샌드위치와 컵 과일, 찰떡 등을 즐길 수 있는 ‘어느 봄날의 브런치’ 프로그램은 축제 며칠 전 이미 매진돼, 축제장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한편 강진군은 내년 월출산 봄소풍 축제를,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의 ‘면 단위 축제’에서 벗어나 군 주관 축제로 확대 개최할 방침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흥군, 복지담당 공무원 보호에 나서

민원인 폭언·폭행 예방 휴대용 블랙박스 ‘웨어러블 캠’ 도입·운영

장흥군은 증가하는 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대응하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웨어러블 캠’을 도입하였다.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로 착용해 주변

을 촬영할 수 있는 영상녹화장치로 음성녹음, 전·후방 촬영이 가능하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사전에 민원인에게 녹화 사실을 알려 촬영을 인식하게 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장흥군은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에 필요한 증거자료 확보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웨어러블 캠은 공무원 중 발생 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서 주민과 직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군정 서비스 제공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완도군에서는 해양치유센터 준공을 앞두고 기구축된 각종 해양치유 공공시설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며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신지 명사십리 해변 일원과 해양문화치유센터에서 해양기후치유 및 해양

문화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은 지난 3월 17일 ‘봄날의 힐링’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읍면 찾아가는 프로그램’, ‘지역 사회 단체 웰빙 프로그램’, ‘해양치유 힐링 프로그램’ 등을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200여 명이 해변 노르딕워킹과

힐링이 필요할 땐 완도로 해양치유하러 오세요

해양기후치유·해양문화치유 프로그램 운영, 참가자 만족도 높아

심인 불 명상, 필라테스 등을 체험했다.

경기도 고양에서 온 한 참가자는 “신지 명사십리의 풍경도 좋고 깨끗한 해변에서 맨발로 해변을 걷는 노르딕워킹과 해변 명상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으며,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해양문화치유센터에서는 미디어 아트와 아로마 교실, 도자기 교실, 요리 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지난 3월부터 매주 토, 일 하루 2회, 2시간씩 진행하고 있다.

주말에만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350여 명이 해양문화치유를 체험하였으며,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재참여 의사가 80% 이상 나타났다.

특히 해양문화치유센터의 미디어 동에서는

완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한 미디어아트를 제작해 새로운 체험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청산 해양치유공원에서는 슬로걷기 축제(04.08~05.07) 기간 동안 노르딕 워킹 체험과 소리, 향기, 해조류, 족욕, 허브 맥반석 등 치유 시설을 예약자에 한 해 무료 체험이 가능하다.

한편 16개의 테라피 실을 갖춘 해양치유센터는 5월 중 시운전을 거치면 견학 및 체험이 가능하고, 9월 중 그랜드 오픈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장보고수산물축제와 전담체전, 장애인체전 등 많은 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해양치유 홍보에 더욱 힘쓰고, 각종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